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3. No.19

한국 FTA 10년의 경제적 과실

— 한국의 FTA 10년 성과 ② —

2014년 3월

제현정 연구위원

명진호 수석연구원

이혜연 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요 약]

I. FTA 발효 이후 교역 동향	1
1. 한·칠레 FTA	1
2. 기타 FTA	4
II. FTA 발효 이후 경쟁력 변화	9
1. 한·칠레 FTA	9
2. 기타 FTA	12
III. FTA 발효 이후 수출입 다변화	14
1. 교역품목 다변화	14
2. 수출기업 다변화	18
IV. FTA의 관세 절감효과 추정	20
1. FTA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	20
2. 주요 품목의 관세 절감 효과	22
V. 결론 및 시사점	24

☐ 보고서 내용 문의처

제현정 연구위원(☎ 02-6000-5175, hjje76@kita.net)

명진호 수석연구원(☎ 02-6000-5263, thetotoro@kita.net)

I. FTA 발효 이후 교역 동향

1. 한·칠레 FTA

(1) 수출입 동향

□ 한국의 對칠레 교역은 FTA 발효 이후 10년간 연평균 16.3%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16.9%, 수입은 16.0% 증가

○ 2013년 양국간 교역은 71.2억 달러로 2003년(15.8억 달러) 대비 373% 증가

○ 양국간 교역은 FTA 발효전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8%에 불과하였으나, FTA 발효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발효 후 3년간 연평균 50.6%, 5년간 35.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이러한 높은 교역 증가율은 한국의 對칠레 수출 및 수입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

○ 양국간 교역 증가율은 우리의 對중남미 교역 증가율을 상회하여 FTA 체결이 무역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한국의 對칠레 교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03	2004 (4월 발효)	2007	2010	2013	발효전 3년 연평균 증가율	발효후 연평균 증가율		
							3년	5년	10년
수출	5.2	7.1	31.2	29.5	24.6	-4.5	44.7	42.4	16.9
대세계 수출 증가율						4.0	18.9	16.8	11.2
대중남미 수출 증가율						-2.1	32.7	30.5	15.2
수입	10.6	19.3	41.8	42.2	46.6	5.5	53.3	31.3	16.0
대세계 수입 증가율						3.7	20.0	19.5	11.2
대중남미 수입 증가율						12.1	28.4	24.5	14.9
교역	15.8	26.4	73.0	71.7	71.2	1.8	50.6	35.4	16.3
대세계 교역 증가율						3.8	19.4	18.1	11.2
대중남미 교역 증가율						2.0	31.3	28.5	15.1
수지	-5.4	-12.3	-10.7	-12.7	-22.0	-	-	-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2) 품목별 수출입 동향

□ FTA 발효 이후 10년간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무선전화기, 승용차, 화물차, 시멘트 등이 큰 폭으로 증가

- 주요 수출품목 중 10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무선전화(52.6%)이며, 승용차와 화물차 수출도 연평균 20% 이상 증가
- FTA 발효 직후 큰 폭으로 증가했던 석유제품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및 아세안 지역의 수입수요를 한국산이 대체함에 따라 우리의 對칠레 수출이 급격히 감소

<한국의 對칠레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03	'04	'06	'08	'10	'12	'13	연평균 증가율
1	승용차 (증가율)	116.9 (41.3)	189.8 (62.4)	376.7 (39.1)	525.4 (1.6)	895.4 (81.3)	1038.2 (3.8)	1046.7 (0.8)	24.5
2	화물차 (증가율)	30.1 (6.1)	41.7 (38.6)	79.1 (3.9)	89.7 (-22.1)	129.9 (93.8)	188.1 (32.4)	201.2 (7.0)	20.9
3	석유제품 (증가율)	81.7 (78.4)	66.6 (-18.5)	494.1 (104.7)	1438.4 (-20.6)	997.4 (56.9)	174.2 (10.2)	196.2 (12.6)	9.2
4	플라스틱제품 (증가율)	34.3 (47.9)	43.9 (27.9)	91.2 (19.6)	80.2 (0.3)	53.7 (148.7)	91.9 (3.9)	97.8 (6.3)	11.0
5	무선전화 (증가율)	1.1 (14.8)	2.1 (78.8)	1.8 (54.0)	55.7 (-35.4)	48.8 (2.0)	18.4 (-75.8)	78.7 (326.7)	52.6
6	자동차부품 (증가율)	18.9 (5.1)	23.0 (21.6)	29.8 (12.7)	38.8 (11.1)	46.8 (42.5)	61.6 (9.0)	74.7 (21.4)	14.7
7	철강판 (증가율)	7.0 (-15.0)	9.7 (39.1)	31.0 (178.4)	65.9 (66.8)	80.5 (199.7)	60.6 (-0.8)	48.3 (-20.4)	21.4
8	타이어 (증가율)	9.3 (9.0)	12.6 (35.5)	18.7 (4.6)	33.2 (37.8)	32.0 (21.8)	45.5 (19.2)	43.1 (-5.3)	16.6
9	중장비 (증가율)	4.6 (35.2)	9.3 (101.4)	26.6 (66.8)	30.8 (0.0)	42.1 (250.5)	37.0 (-1.9)	35.2 (-5.0)	22.6
10	시멘트 (증가율)	0.0 (-)	1.7 (-)	3.3 (88.9)	6.9 (517.1)	11.2 (28.1)	40.3 (51.5)	31.8 (-21.0)	34.0

주: 품목은 HS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 對칠레 수입은 FTA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가 큰 농수산물 위주로 크게 증가

- 對칠레 주요 수입품인 구리광 및 구리제품의 수입 증가는 FTA 효과라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에 기인
- 칠레산 포도 수입은 10년간 연평균 26.6% 증가하였으며, 돼지고기는 12.9%, 냉동어류(연어 등)는 13.3%, 와인은 28.4% 증가

〈한국의 對칠레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03	'04	'06	'08	'10	'12	'13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1	구리광 (증감률)	219.1 (81.7)	513.1 (134.2)	1,369.2 (108.3)	1,254.6 (-1.5)	958.0 (61.9)	1,643.2 (28.1)	1,620.0 (-1.4)	22.1
2	정제구리 (증감률)	510.5 (19.7)	928.0 (81.8)	1,189.8 (43.9)	1,486.0 (7.5)	1,924.1 (38.5)	1,417.2 (-27.1)	1,188.0 (-16.2)	8.8
3	미정제구리 (증감률)	0.0 -	21.8 -	372.0 (1436.6)	213.7 (-54.8)	85.0 (16.4)	393.2 (-10.1)	422.9 (7.5)	34.5
4	펄프 (증감률)	81.8 (17.7)	94.6 (15.7)	129.1 (19.3)	266.4 (17.4)	287.4 (18.7)	260.7 (-11.6)	293.4 (12.5)	13.6
5	포도 (증감률)	13.7 (57.5)	13.1 (-3.8)	27.8 (45.3)	64.2 (35.5)	74.7 (44.8)	118.1 (18.2)	144.4 (22.3)	26.6
6	몰리브덴광 (증감률)	10.3 (141.5)	47.7 (363.2)	76.2 (-53.0)	197.6 (10.6)	85.3 (66.8)	105.0 (35.8)	126.5 (20.4)	28.5
7	귀금속광 (증감률)	0.0 -	0.0 -	0.0 -	0.0 -	0.0 -	32.9 (768.0)	122.9 (273.5)	41.6
8	돼지고기 (증감률)	30.1 (376.4)	54.6 (81.2)	82.0 (3.6)	88.1 (-25.1)	111.5 (-7.0)	124.7 (7.1)	101.8 (-18.4)	12.9
9	목재 (증감률)	8.8 (19.1)	10.5 (19.5)	13.1 (-3.7)	32.9 (37.1)	43.6 (72.5)	74.1 (2.2)	89.2 (20.3)	26.1
10	탄산염 (증감률)	1.3 (13.3)	2.9 (119.8)	8.8 (58.8)	30.7 (49.0)	38.3 (25.6)	64.9 (30.3)	66.7 (2.9)	48.0
12	냉동어류 (증감률)	15.9 (61.8)	16.3 (2.6)	35.1 (74.1)	39.9 (5.2)	26.7 (-27.7)	42.4 (-33.8)	55.3 (30.5)	13.3
14	와인 (증감률)	3.0 (148.2)	8.0 (167.8)	15.4 (29.4)	29.7 (16.5)	24.5 (1.3)	30.5 (4.3)	36.5 (19.6)	28.4
16	과실주스 (증감률)	0.1 (94.2)	0.047 (-59.9)	2.1 (56.4)	4.8 (150.6)	13.3 (35.3)	25.8 (8.3)	30.2 (17.1)	74.4

주: 품목은 HS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2. 기타 FTA

(1) 한·EFTA FTA

□ 한국의 對EFTA 교역은 FTA 발효 이후 8년간 연평균 14.9%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10.6%, 수입은 17.1% 증가

- 2013년 EFTA와의 교역은 88.5억 달러로 2005년 대비 204.1% 증가
- 양자간 교역은 FTA 발효전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5.7%였으나, 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하여 발효 후 3년간은 연평균 31.8%, 5년간은 26.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한국의 對EFTA 교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05	2006 (9월 발효)	2009	2011	2013	발효전 3년 연평균 증가율	발효후 연평균 증가율		
							3년	5년	8년
수출	10.9	17.3	19.6	18.2	24.4	9.0	32.2	26.4	10.6
대세계 수출 증가율						20.5	14.1	10.4	8.8
대유럽 수출 증가율						25.1	13.2	5.7	3.4
수입	18.2	22.0	45.5	51.8	64.1	4.0	31.5	25.7	17.1
대세계 수입 증가율						19.8	18.6	10.2	8.9
대유럽 수입 증가율						15.5	16.9	10.7	10.6
교역	29.1	39.3	65.0	70.0	88.5	5.7	31.8	26.0	14.9
대세계 교역 증가율						20.1	16.3	10.3	8.8
대유럽 교역 증가율						21.0	14.7	7.7	6.6
수지	-7.3	-4.7	-25.9	-33.6	-39.7	-	-	-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2) 한·ASEAN FTA

□ 한국의 對ASEAN 교역은 FTA 발효 이후 7년간 연평균 11.8%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14.4%, 수입은 8.7% 증가

- 2013년 ASEAN과의 교역은 1,353억 달러로 2006년 대비 119.0% 증가

- 한·ASEAN FTA 발효('07. 6월) 이후 3년간 연평균 교역 증가율(6.7%)이 발효 전 3년간 증가율(16.9%)보다 낮아진 것은 2008년 말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컸기 때문임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FTA 발효 후 5년간, 7년간 연평균 교역 증가율은 각각 15.1%, 11.8%로 상승

〈한국의 對ASEAN 교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06	2007 (6월 발효)	2009	2011	2013	발효전 3년 연평균증가율	발효후 연평균 증가율		
							3년	5년	7년
수출	320.7	387.5	409.8	718.0	820.0	16.6	8.5	17.5	14.4
대세계 수출 증가율						18.9	3.8	11.3	8.1
대아시아 수출 증가율						19.3	4.2	13.3	9.8
수입	297.4	331.1	340.5	531.2	533.4	17.2	4.6	12.3	8.7
대세계 수입 증가율						20.0	1.5	11.1	7.6
대아시아 수입 증가율						18.8	1.8	9.9	6.1
교역	618.1	718.6	750.3	1,249	1,353	16.9	6.7	15.1	11.8
대세계 교역 증가율						19.4	2.6	11.2	7.8
대아시아 교역 증가율						19.1	3.1	11.8	8.2
수지	23.2	56.4	69.3	186.8	286.6	-	-	-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3) 한·인도 FTA

□ 한국의 對인도 교역은 FTA 발효 이후 4년간 연평균 9.6%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9.2%, 수입은 10.5% 증가

- 2013년 인도와의 교역은 175.6억 달러로 2009년 대비 44.4% 증가
- FTA 발효 후 3년간 양국간 연평균 교역 증가율은 15.7%로 발효 전 3년 증가율 9.8%보다 상승
- 2013년에는 인도 국내 경제의 부진으로 양국간 교역이 감소

〈한국의 對인도 교역동향〉

(단위 : 억 달러, %)

	2009	2010 (1월 발효)	2011	2012	2013	발효전 3년 연평균증가율	발효후 연평균 증가율	
							3년	4년
수출	80.1	114.4	126.5	119.2	113.8	13.1	14.2	9.2
대세계 수출 증가율						3.8	14.7	11.4
대아시아 수출 증가율						4.2	18.6	14.2
수입	41.4	56.7	78.9	69.2	61.8	4.4	18.7	10.5
대세계 수입 증가율						1.5	17.2	12.4
대아시아 수입 증가율						1.8	12.9	9.4
교역	121.6	171.1	205.5	188.4	175.6	9.8	15.7	9.6
대세계 교역 증가율						2.6	15.8	11.9
대아시아 교역 증가율						3.1	16.1	12.1
수지	38.7	57.6	47.6	50.0	52.0	-	-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4) 한·EU FTA

□ 한국의 對EU 교역은 FTA 발효 이후 3년간 연평균 4.4%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3.0% 감소, 수입은 13.2% 증가

- 2013년 EU와의 교역은 1,051억 달러로 2010년 대비 13.9% 증가
- FTA 발효 후 3년간 양국간 연평균 교역 증가율은 4.4%로 발효 전 3년 연평균 증가율 -0.2%보다 상승
- FTA 발효 이후 수출이 감소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유로존 경기침체로 한국의 對EU 수출 중 비중이 큰 선박 수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

* 對EU 조선 수출(억 달러): 137.3('10) → 126.7('11) → 80.4('12) → 57.8('13)

〈한국의 對EU 교역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0	2011 (7월 발효)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발효전 3년	발효후 3년
수출	535.1	557.3	493.7	488.6	-1.5	-3.0
대세계 수출 증가율					7.9	6.3
수입	387.2	474.2	503.7	562.3	1.7	13.2
대세계 수입 증가율					6.0	6.6
교역	922.3	1,031.5	997.5	1,050.9	-0.2	4.4
대세계 교역 증가율					7.0	6.4
수지	147.9	83.0	-10.0	-73.7	-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5) 한·페루 FTA

□ 한국의 對페루 교역은 FTA 발효 이후 3년간 연평균 20.0%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15.1%, 수입은 24.0% 증가

- 2013년 페루와의 교역은 34.2억 달러로 2010년 대비 72.7% 증가
- FTA 발효 후 우리의 對페루 수입(24.0%)이 발효 전(0.0%)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액상천연가스(LNG) 수입과 아연광, 은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
- 2010년 6월 SK이노베이션이 페루에 투자한 LNG 플랜트의 현지 생산량이 2011년부터 수입되기 시작

〈한국의 對페루 교역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0	2011 (8월 발효)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발효전 3년	발효후 3년
수출	9.4	13.7	14.7	14.4	26.5	15.1
			대세계 수출 증가율		7.9	6.3
			대중남미 수출 증가율		12.0	0.1
수입	10.4	19.5	16.4	19.8	0.0	24.0
			대세계 수입 증가율		6.0	6.6
			대중남미 수입 증가율		9.0	7.8
교역	19.8	33.2	31.1	34.2	9.6	20.0
			대세계 교역 증가율		7.0	6.4
			대중남미 교역 증가율		11.1	2.5
수지	-0.9	-5.8	-1.7	-5.4	-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6) 한·미 FTA

□ 한국의 對美 교역은 FTA 발효 이후 2년간 연평균 1.4%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5.1% 증가, 수입은 3.5% 감소

- 한미 FTA 발효 후 2년 간 연평균 교역 증가율(1.4%)이 발효 전 3년간 증가율(5.9%)을 하회하나, 이는 발효 전 3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이 회복된 시기인 반면, 발효 후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부진으로 교역이 위축되었기 때문

- FTA 발효 후 2년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5.1%)이 對세계 증가율(0.4%)을 크게 상회한 것은 한미 FTA 발효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

〈한국의 對美 교역동향〉

(단위 : 억 달러, %)

	2009	2010	2011	2012 (3월 발효)	2013	연평균 증가율	
						발효 전 3년	발효 후 2년
수출	376.5	498.2	562.1	585.3	620.5	6.6	5.1
대세계 수출 증가율						9.6	0.4
수입	290.4	404.0	445.7	433.4	415.1	5.1	-3.5
대세계 수입 증가율						6.4	-0.8
교역	666.9	902.2	1,007.8	1,018.7	1,035.6	5.9	1.4
대세계 교역 증가율						8.0	-0.2
수지	86.1	94.1	116.4	151.8	205.4	-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7) 한·터키 FTA

□ 한국의 對터키 교역은 FTA 발효 이후 21.6%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24.3%, 수입은 3.0% 증가

- 對터키 수출 호조는 현지 생산용 LCD, 자동차 부품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

〈한국의 對터키 교역동향〉

(단위 : 억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5월 발효)	연평균 증가율	
						발효 전 3년	발효 후
수출	26.6	37.5	50.7	45.5	56.6	19.6	24.3
대세계 수출 증가율						14.7	2.1
대중동 수출 증가율						15.1	-11.8
수입	4.3	5.2	8.1	6.7	6.9	15.7	3.0
대세계 수입 증가율						17.2	-0.8
대중동 수입 증가율						27.5	-1.2
교역	31.0	42.7	58.8	52.2	63.5	19.1	21.6
대세계 교역 증가율						15.8	0.7
대중동 교역 증가율						24.3	-3.6
수지	22.3	32.4	42.7	38.8	49.7	-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II. FTA 발효 이후 경쟁력 변화

1. 한·칠레 FTA

□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이 발효 전 2.8%에서 2007년 6.8%까지 상승했으나 2012년 현재 3.3% 기록

- 칠레는 2014년 현재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51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FTA를 통해 수입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FTA 발효 이후 시장 점유율을 6.8%까지 확대했으나, 이후 중-칠레 FTA 발효('06. 10월) 및 동일본 대지진 발생('11. 3월)에 따른 석유제품 수출 감소로 2012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3.3%까지 하락
-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의 석유제품 수출선이 일본과 아세안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對칠레 석유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점유율도 상승
- 2012년에는 칠레의 對美 비행기 수입이 급증하여 미국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됨

<한국, 미국, 중국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IMF DOTS

- 한편, 2007년에 칠레와 FTA를 발효한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3.76%에서 2010년 5.72%까지 증가하였으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2012년에는 3.27%로 우리 점유율을 하회
- 칠레와 지리적으로 근접하나 FTA를 체결하지 않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주요국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04.1)	14.35	14.44	15.58	15.83	16.52	18.97	18.60	16.89	20.07	22.91
중국 (‘06.10)	8.52	10.00	9.80	11.27	12.74	13.17	14.43	16.82	16.87	18.16
EU (‘03.2)	17.04	14.75	15.79	14.34	13.24	12.36	15.97	13.53	13.75	13.39
아르헨티나	19.64	16.83	14.68	11.65	9.20	8.10	10.85	7.91	6.30	6.65
브라질	11.34	11.48	11.62	10.98	9.52	8.44	6.72	7.86	8.27	6.53
한국 (‘04.4)	2.79	3.24	3.46	4.44	6.84	5.20	5.23	5.88	3.63	3.28
일본 (‘07.9)	3.67	4.01	3.86	3.76	4.17	5.11	3.72	5.72	3.93	3.27

주: () 안은 발효시점, 발효 이후를 음영으로 표시
자료: IMF DOTS

□ 우리나라 주요 품목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은 승용차와 시멘트가 점유율이 가장 크게 확대됨

- 승용차의 시장 점유율은 2003년 12.4% 2012년 30.6%까지 확대되어 칠레 수입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FTA 발효 이전에 수출이 미미했던 시멘트는 2005년부터 수출 증가가 본격화되면서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4년 5.8%에서 2012년 39.9%까지 확대
- 석유제품은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7년 33.8%까지 상승한 바 있으나 일본, 아세안으로의 수출 전환 영향으로 2012년에는 1.1%에 불과

〈주요 품목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순위	품목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	승용차	12.4	19.6	20.6	23.2	25.2	23.4	32.7	30.0	28.5	30.6
2	화물차	7.2	6.8	7.4	7.9	9.3	6.1	7.3	6.3	6.4	6.0
3	석유제품	9.9	6.7	7.4	17.9	33.8	17.0	16.4	21.3	2.6	1.1
4	플라스틱 제품	19.6	17.7	23.6	29.8	18.7	19.6	8.9	9.8	17.1	16.3
5	무선전화	1.2	1.4	0.7	0.7	8.4	6.1	5.7	3.6	4.1	1.5
6	자동차부품	3.3	2.8	3.1	3.1	3.2	4.2	3.3	2.8	2.8	4.1
7	철강판	10.4	9.1	12.9	21.9	24.0	31.3	23.9	24.1	23.7	16.9
8	타이어	3.9	4.1	4.6	3.7	3.4	4.3	3.2	2.7	2.5	3.3
9	중장비	4.0	2.9	2.5	4.0	3.1	3.2	1.0	2.9	2.3	2.5
10	시멘트	0.0	5.8	12.2	16.1	7.1	22.4	37.8	28.0	50.5	39.9

주: 품목은 HS 4단위 기준

자료: IMF DOTS

※ 참고: 칠레 주요 수출품목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 칠레의 주요 수출품목이 한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살펴보면, 포도는 발효 이전 64.1%에서 2013년 76.7%로 확대되었으며, 돼지고기는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감소(16.4%→12.4%)
- 한·칠레 FTA의 최대 수혜 품목인 와인의 시장 점유율은 2003년 6.5%에서 2011년 22.1%까지 확대되었으나, 최근 한·EU, 한·미 FTA 발효 이후 소폭 하락

〈칠레 주요 수출품목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순위	품목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	구리광	25.8	43.6	37.9	41.6	38.1	35.7	18.0	21.1	22.8	35.9	41.1
2	정제구리	64.5	65.8	52.6	46.7	44.0	47.6	54.1	61.3	60.1	56.8	53.0
3	미정제구리	0.0	11.0	15.3	56.0	59.7	42.1	31.5	28.4	72.2	66.6	79.1
4	펄프	8.3	8.5	9.6	10.7	15.7	17.4	21.9	17.4	18.9	20.8	22.6
5	포도	64.1	62.1	66.5	73.5	74.5	82.9	81.1	81.5	80.0	78.4	76.7
6	몰리브덴광	21.2	29.4	32.1	20.3	29.7	36.1	30.6	21.9	19.7	33.3	45.7
7	귀금속광	0.0	0.0	0.0	0.0	0.0	0.0	0.0	0.0	1.6	6.0	17.4
8	돼지고기	16.4	16.4	13.4	11.1	13.6	10.7	17.8	16.8	8.1	11.0	12.4
9	목재	4.3	4.9	6.1	5.2	7.9	11.4	10.1	13.2	16.6	15.7	16.5
10	탄산염	1.2	2.1	3.2	5.1	11.2	12.1	17.7	18.4	17.4	23.0	25.1
12	냉동어류	2.1	2.1	2.5	3.7	3.7	4.2	3.7	2.3	4.3	3.2	4.7
14	와인	6.5	13.8	17.6	17.4	17.0	17.8	21.5	21.7	22.1	20.7	21.2
16	과실주스	0.11	0.05	1.3	1.8	1.3	3.3	8.3	10.4	13.5	12.7	15.8

주: 품목은 HS 4단위 기준

자료: KITA.net

2. 기타 FTA

□ FTA 발효 이후 ASEAN, 페루, 미국 수입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확대된 반면, EFTA, 인도, EU에서는 점유율이 감소

○ [EFTA]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5년 0.66%에서 2010년에는 1.09%까지 상승하였으나 중국의 점유율 확대 등으로 2012년에는 0.71%로 감소

○ [ASEAN] ASEAN은 한중일 3개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국,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확대된 반면 일본은 감소

- 한국의 ASEAN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6년 5.86%에서 2011년 8.02% (+2.16%p)로 확대

○ [인도] 인도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FTA 발효 이전 2.86%에서 발효 이후 2.97%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최근 인도의 원유 수입이 증가하면서 2012년에는 2.67%로 하락

○ [EU] 에너지 수입원인 러시아 및 CIS국가와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0년 2.6%에서 2012년 2.1%로 하락

- EU 수입시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점유율도 최근 하락 추세임

○ [페루]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FTA 발효 이전인 2010년 3.40%에서 2011년 3.90%로 확대되었다가 2012년에는 3.80%로 소폭 감소

- 중국은 FTA 발효 이전보다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였으며, 일본은 2011년까지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FTA 발효('12 3월) 이후 2012년에는 소폭 상승

○ [미국] FTA 발효 이후 2년 연속 우리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여 2013년에는 2.75%를 기록, 이는 2005년(2.62%) 이래 최고 수치임

〈한국의 FTA체결국(지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① EFTA

(단위 : %)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국	3.28	3.39	3.73	3.87	4.56	4.95	5.21	6.75
일본	2.33	2.12	2.01	2.21	2.28	2.08	2.23	2.30
한국('06.9)	0.66	0.77	0.60	0.66	0.76	1.09	0.99	0.71

주: 역내교역 제외(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통계는 결측되어 제외 후 계산

자료: IMF DOTS

② ASEAN

(단위 : %)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05.7)	14.03	15.28	16.45	15.62	17.57	16.89	16.83
일본('08.12)	18.61	16.41	15.52	15.51	15.06	14.67	14.56
한국('07.6)	5.42	5.86	5.60	5.96	7.36	7.50	8.02
대만	5.37	5.73	1.04	1.99	1.61	3.60	5.31

자료: Aseanstats

③ 인도

(단위 : %)

국가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중국	10.79	10.70	10.69	11.76	11.30	10.65
한국('10.1)	2.40	2.86	2.97	2.83	2.62	2.67
일본('11.8)	2.51	2.60	2.34	2.33	2.45	2.53
대만	0.95	0.94	0.91	1.07	0.99	0.81

주: 2007-2008은 인도의 회계기준으로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을 나타냄

자료: 인도 상무부

④ EU

(단위 : %)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CIS(러시아)	12.8	14.5	12.0	13.2	15.0	15.2
OPEC	8.4	9.9	7.9	8.5	9.2	10.6
중국	16.1	15.7	17.4	18.5	17.0	16.2
일본	5.5	4.8	4.7	4.4	4.0	3.6
한국('11.7)	2.9	2.5	2.6	2.6	2.1	2.1

자료: Eurostat

⑤ 페루

(단위 : %)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중국('10.3)	13.45	15.03	12.79	13.28	13.78
브라질	8.08	7.64	7.27	6.45	6.24
아르헨티나	4.95	4.077	3.97	5.08	4.74
한국('11.8)	2.55	2.90	3.40	3.90	3.80
일본('12.3)	4.06	4.12	3.58	2.62	2.68

자료: IMF DOTS

⑥ 미국

(단위 : %)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국	16.08	19.03	19.09	18.09	18.71	19.43
일본	6.63	6.16	6.29	5.84	6.43	6.11
한국('12.3)	2.29	2.52	2.56	2.57	2.59	2.75
대만	1.73	1.82	1.88	1.88	1.71	1.67
콜롬비아('12.5)	0.62	0.73	0.82	1.05	1.08	0.95

자료: 한국무역협회

Ⅲ. FTA 발효 이의 수출입 다변화

1. 교역품목 다변화

※ 분석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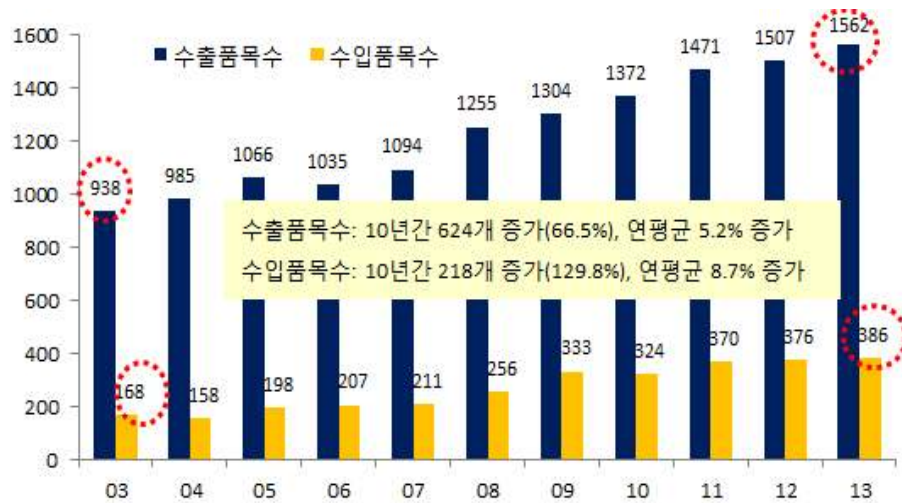
- FTA 체결 효과는 발효 이후 교역량의 증가 이외에도 교역 품목수가 증가하여 수출입이 다변화되는 효과가 나타남
- 이에 HS 품목분류 최종단위인 HS 10단위를 기준으로 FTA 체결 이전과 이후의 수출입 품목수 변화를 살펴봄
- 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5년마다 개정되며, 한국 기준의 10단위는 매년 소폭 개정(수정, 신설 또는 삭제)됨
 - 따라서 수년간 FTA 발효 전후의 품목수 변화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수정, 신설 또는 삭제된 품목을 제외하고 연속성이 있는 HS 10단위 품목(9,375개)만을 대상으로 함
 - 단, 2007년에 세계적으로 HS 코드가 대폭 개정되었기 때문에 변경폭이 큰 전기전자 및 수송기계 등 일부 산업은 연속성이 있는 분석대상 품목이 매우 제한적임

(1) 한·칠레 FTA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교역량 이외에도 양자간 교역 품목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출입 다변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對칠레 수출품목은 FTA 발효 이전 938개(HS 10단위 기준)에서 2013년 1,562개로 624개(66.5%)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출품목이 연평균 5.2% 증가한 것임
- 對칠레 수입품목은 FTA 발효 이전 168개에 불과하였으나, 연평균 8.7% 증가하여 2013년에는 386개를 기록

〈한국의 對칠레 교역 품목수 변화〉



주: HS 10단위 기준이며, 2002년부터 2012까지 HS 개정으로 삭제되거나 신규로 만들어진 코드는 제외시킴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 산업별로는 화학제품, 전기전자, 금속제품, 기계류, 농수산물식품을 중심으로 수출 품목수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농수산물식품의 품목수가 크게 증가

- 품목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계류는 179개에서 306개로 127개 증가하였으며, 화학제품은 60개→144개(+84개), 전기전자는 107개→185개(+78개) 증가
- 2003년 수출 품목수가 25개에 불과했던 농수산물식품은 10년간 73개 품목이 늘어나 2013년에는 3배 이상의 품목이 수출됨
- 한편, 광물, 섬유 및 의류, 수송기계는 품목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광물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HS 10단위 품목수 자체가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품목 자체가 제한적임
 - 수송기계는 코드변경이 많아 분석대상 품목수 자체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우리의 對칠레 수출은 완성차 위주이기 때문에 수출 품목의 다변화 효과가 작은 것으로 평가됨

〈한국의 對칠레 산업별 수출 품목수 변화〉

(단위: 품목수)

구분	'03(A)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B)	B-A
농수산물	25	21	31	23	23	42	43	68	94	115	98	+73
광물	9	14	13	12	10	13	12	21	19	18	16	+7
화학제품	60	66	76	80	91	95	118	123	127	132	144	+84
플라스틱 고무	95	99	106	97	110	108	123	122	128	137	144	+49
섬유 및 의류	142	153	145	143	116	132	138	139	152	139	153	+11
금속제품	99	92	99	100	115	144	153	157	157	149	170	+71
기계류	179	199	246	235	275	289	281	282	304	310	306	+127
전기전자	107	105	124	124	117	151	140	151	165	171	185	+78
수송기계	20	30	24	27	25	30	30	33	31	33	33	+13
기타	202	206	202	194	212	251	266	276	294	303	313	+111
총계	938	985	1066	1035	1094	1255	1304	1372	1471	1507	1562	+624

주1: HS 10단위 기준이며, 2002년부터 2012까지 HS 개정으로 삭제되거나 신규로 만들어진 코드는 제외시킴

주2: 산업분류는 HS 2단위 기준으로 구분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 o 수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농수산식품의 수입 품목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2003년 41개에서 2013년에는 132개로 91개가 늘어남

〈한국의 對칠레 산업별 수입 품목수 변화〉

(단위: 품목수)

구분	'03(A)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B)	B-A
농수산물	41	40	54	53	54	67	106	110	123	142	132	+91
화학제품	25	24	28	34	40	34	39	39	49	38	41	+16
섬유 및 의류	11	2	10	14	20	16	16	25	23	29	26	+15
금속제품	11	14	18	14	17	19	22	25	21	22	26	+15
기계류	13	12	14	17	11	18	22	25	29	28	28	+15
기타	67	66	74	75	69	102	128	100	125	117	133	+66
총계	168	158	198	207	211	256	333	324	370	376	386	+218

주1: HS 10단위 기준이며, 2002년부터 2012까지 HS 개정으로 삭제되거나 신규로 만들어진 코드는 제외시킴

주2: 산업분류는 HS 2단위 기준으로 구분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2) 기타 FTA

□ 한국이 FTA를 체결한 모든 국가에 대한 교역 품목수가 FTA 체결 이전에 비해 증가하여 교역품목의 다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아세안] 수출 및 수입 품목수가 모두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아세안으로 수출은 5,179개→6,031개(+852개), 수입은 4,510개→5,182개(+672개) 증가
- [EFTA] 수출 품목수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EFTA로 품목수가 1,171개→1,517개(+346개)로 29.5% 증가하였으며, 수입품목은 2,462개→2,774개(+312개)로 12.7% 증가
- [인도] 인도와의 교역품목은 수출 품목수는 2,762개→3,001개(+239개)로 8.7%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수입 품목수는 2,612개→3,218개(+606개)로 23.2% 증가하여 수입품목의 다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EU/미국] EU와 미국은 교역 품목수 자체가 많고 FTA 발효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모두 FTA 발효 이전에 비해 교역품목이 200여개 이상 늘어남

〈한국의 對FTA 체결국 교역 품목수 변화〉

(단위: 품목수, 증가율 %)

EFTA (‘06 9)		ASEAN (‘07 6)		인도 (‘10 1)		EU (‘11 7)		페루 (‘11 8)		미국 (‘12 3)		터키 (‘13 5)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5 (A)		‘06 (A)		‘09 (A)		‘10 (A)		‘10 (A)		‘11 (A)		‘12 (A)	
1,171	2,462	5,179	4,510	2,762	2,612	4,347	6,804	1,022	305	4,526	6,700	2,002	1,596
‘13 (B)		‘13 (B)		‘13 (B)		‘13 (B)		‘13 (B)		‘13 (B)		‘13 (B)	
1,517	2,774	6,031	5,182	3,001	3,218	4,563	7,142	1,161	358	4,769	6,934	2,122	1,793
증감 품목수 B-A (증가율)													
346 (29.5)	312 (12.7)	852 (16.5)	672 (14.9)	239 (8.7)	606 (23.2)	216 (5.0)	338 (5.0)	139 (13.6)	53 (17.4)	243 (5.4)	234 (3.5)	120 (6.0)	197 (12.3)

주: HS 10단위 기준, 2002년부터 2012까지 HS 개정으로 삭제되거나 신규로 만들어진 코드는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2. 수출기업 다변화

□ FTA 체결에 따라 수출 기업수 자체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한·칠레 FTA 이후 對칠레 수출 기업수가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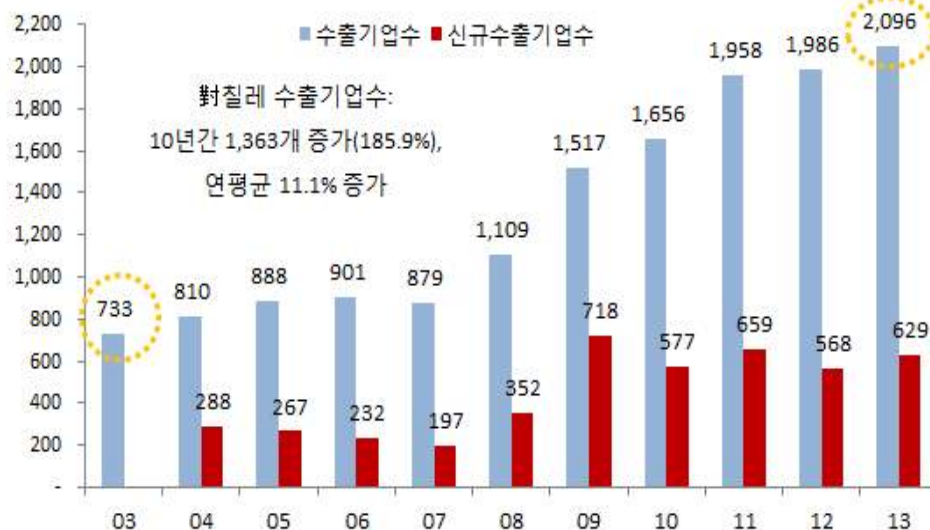
○ 對칠레 수출 기업수는 10년간 연평균 11.1%, 1,363개가 증가하여 수출 기업이 큰 폭으로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남

- FTA 발효 이전 對칠레 수출 기업수는 733개에 불과하였으나,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2,096개로 집계됨

○ 2003년부터 이전 연도까지 수출 실적이 없다가 당해 연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신규 수출기업은 매년 200여개 이상이며, 특히 2009년부터 500여개 이상으로 크게 증가

- 매년 신규 수출 기업수는 총 수출 기업수의 30~40% 가량을 차지

〈한국의 對칠레 수출 기업수 변화〉



주 1: 수출기업은 통관고유번호 기준

주 2: 신규기업은 2003년부터 이전 연도까지 실적이 없었으나 당해 연도에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규정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 금액규모별 수출 기업수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對칠레 수출기업의 다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규모가 연간 십만 달러 이상, 백만 달러 이하 규모의 기업이 10년간 748개 증가
- 연간 백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수는 발효 전 51개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99개가 늘어난 150개로 집계됨
- 연간 만 달러 이하를 수출하는 소액 수출의 경우 발효 전 181개에서 2013년에는 697개로 증가

〈한국의 對칠레 수출 기업수 변화(규모별)〉

(단위: 업체수, 증가율 %)

		'03(A)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B)	B-A
백만 달러 이상	총수출 기업	51	55	65	83	97	97	93	120	141	148	150	+99
	신규 기업		(4)	(2)	(4)	(6)	(19)	(18)	(12)	(7)	(4)	(17)	
십만 달러 ~백만 달러	총수출 기업	144	185	219	200	215	215	320	379	447	461	499	+355
	신규 기업		(30)	(29)	(28)	(22)	(61)	(109)	(74)	(89)	(61)	(71)	
만달러 ~ 십만 달러	총수출 기업	357	355	376	412	363	444	604	624	756	775	750	+393
	신규 기업		(121)	(126)	(114)	(88)	(124)	(266)	(196)	(260)	(226)	(197)	
만달러 이하	총수출 기업	181	215	228	206	204	279	500	533	614	602	697	+516
	신규 기업		(133)	(110)	(86)	(81)	(148)	(325)	(295)	(303)	(277)	(344)	
총계		733	810	888	901	879	1,109	1,517	1,656	1,958	1,986	2,096	+1,363

주 1: 수출기업은 통관고유번호 기준

주 2: 신규기업은 2003년부터 이전 연도까지 실적이 없었으나 당해 연도에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규정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IV. FTA의 관세 절감 효과 추정

1. FTA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

□ FTA 체결로 우리 수출에 대한 관세 장벽이 2004년 5.28%(수출액 가중평균 관세율)에서 2013년 4.65%로 낮아짐

- FTA를 전혀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수출액 가중평균 관세율은 2013년 기준 6.11%로 상승

□ 관세 장벽 완화로 2013년 기준 FTA의 관세 절감 효과는 최대 79.9억 달러로 추정

- FTA를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한 세계 시장의 관세 장벽은 연간 334억 달러('13년)에 달하나, FTA를 통해 관세 장벽을 최대 254억 달러(-79.9억 달러)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FTA 체결이 확대되고 각 FTA의 관세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만큼 관세 절감 효과는 점차 누적적으로 확대됨

□ 관세 절감 효과는 수출 규모가 크고 관세 인하 스케줄이 빠른 미국 및 EU와의 FTA에서 크게 나타남

- 관세 절감 효과는 연간 최대 '04년 2천만 달러(한·칠레) → '07년 5억 달러(한·ASEAN) → '11년 55억 달러(한·EU 및 한·페루) → '11년 55억 달러(한·EU, 한·페루) → '12년 72.4억 달러(한·미) → '13년 79.9억 달러(한·터키)까지 확대

□ 既발효 FTA의 관세 인하가 완료되고 최근 협상이 타결된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와의 FTA와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FTA까지 발효될 경우 관세 절감액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

- 수출액을 가중한 관세율은 '13년 4.65% → '24년 4.37%까지 낮아지고 여기에 현재 협상이 타결된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와 FTA가 발효되면 4.28%,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2.31%까지 낮아질 전망

- 既발효 FTA의 관세 인하가 완료되는 '24년경¹⁾ 관세절감액은 연간 최대 94.8억 달러 규모이며,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와의 FTA 발효시 99.9억 달러, 한·중 FTA까지 완료되면 207.7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

〈FTA의 관세 절감 효과 추정〉

FTA 연도	'03	칠레 '04	EFTA '06	아세안 '07	인도 '10	EU/페루 '11	미국 '12	터키 '13	'15	'16	'24	캐/호/콜 ²⁾	중국
관세율 파악된 수출액(억 달러)	1,914	2,508	3,211	3,651	4,525	5,410	5,382	5,471				-	
전체수출비중(%)	98.8	98.8	98.7	98.3	97.0	97.4	98.2	97.8				-	
FTA 未제결 관세장벽 (억 달러)	101	135	180	213	275	334	325	334	334	334	334	334	334
가중관세율(%)	5.28	5.36	5.62	5.82	6.08	6.17	6.03	6.11	6.11	6.11	6.11	6.11	6.11
FTA 체결 관세장벽 (억 달러)	101	134	180	208	248	279	252	254	247	241	239	234	126
가중관세율(%)	5.28	5.35	5.59	5.69	5.49	5.16	4.68	4.65	4.52	4.41	4.37	4.28	2.31
FTA 절감액 (억 달러)	0.0	0.2	0.9	5.0	26.6	55.1	72.4	79.9	87.0	93.0	94.8	99.9	207.7
절감세율(%p)	0.00	0.01	0.03	0.13	0.59	1.01	1.35	1.46	1.59	1.70	1.74	1.83	3.80

주1: 국별 비농산물 평균관세율에 각 FTA별 관세 양허 스케줄과 수출 비중을 가중하여 산출

주2: 분석을 위해 FTA 활용과 관세환급 등은 고려하지 않은 추정치

자료: WTO 및 코트라 세율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및 GTA 통계, 각 FTA 별 협정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FTA 관세절감액 추정 방법】

- FTA 관세절감액을 추정하기 위해 WTO 및 코트라 자료를 활용, 총 180개국의 확보 가능한 최근 평균 관세율 자료를 파악('13년 수출의 98% 상당)
 - WTO의 평균관세율은 전체·농산물·비농산물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평균 관세가 높아 전체 평균 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점과 우리 수출의 농산물 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함
 - EU의 예: 전체 5.5%, 농산물 13.2%, 비농산물 4.2%로 4.2%를 EU의 기준 관세로 활용
- 연도별·국가별 우리 수출액('03~'13년, 180개국)과 각 FTA별 상대국의 양허스케줄(일부 제외하고 금액기준)을 활용하여 관세절감액 및 수출액 가중 관세율을 추정
 - 칠레(품목수 기준): 즉시 41.8%, 5년 34.1%...5년거치 8년 철폐 2.6%, 제외 1.0%
 - ASEAN: 일반품목군 85%, 일반+2년 5%, 민감품목군 7%, 초민감품목군 3%
 - ASEAN 선발 5개국, 베트남,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별로 인하스케줄 차등
 - 인도: 즉시 38.4%, 5년 14.0%, 8년 22.1%, 8년내 5%까지 8.5%, 10년내 50%감축 2.4%, 제외 14.5%
 - EU: 즉시 76.6%, 4단계 16.7%, 5단계 6.7%
 - 페루: 즉시 74.2%, 5년 14.4%, 8년 0.6%, 10년 10.8%, 양허제외 등
 - 미국: 즉시 69.2%, 3년 1.2%, 5년 6%, '16년 철폐 19.3%(승용차), 7년 0.1%, 10년 4.2%, 10년 초과 등
 - 터키: 즉시 53.8%, 4단계년 8.8%, 6단계 15.3%, 8단계 22.0%, 11단계, 양허제외 등
 -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100% 철폐, 중국: 85% 철폐
- 단, 동 분석은 FTA가 전면 활용됨을 가정하였으며, 관세환급 등은 고려되지 않은 추정치임

1) 현재 발효중인 FTA 가운데 가장 긴 관세 인하 스케줄은 한·ASEAN FTA의 민감 및 초민감 품목의 관세인하 스케줄로 '24년에 완료됨

2)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콜롬비아 FTA

2. 주요 품목의 관세 절감 효과

□ FTA 확대로 우리 수출의 산업별 주력 수출품에 대한 세계 시장의 관세 장벽도 큰 폭으로 완화됨

- (자동차) 주력 수출품인 준중형 휘발유 승용차의 경우 EU 등과 FTA로 관세장벽을 '13년 32.3억 달러에서 31.1억 달러로 낮추어 연간 1.1억 달러의 관세 절감이 가능했고, '16년 미국의 승용차 관세 철폐 실시 및 캐나다·호주·콜롬비아와의 FTA 발효 효과가 기대됨
 - '16년 미국의 승용차 관세 철폐시 절감액은 3.8억 달러까지 확대되고, 주요 승용차 수출 시장인 캐나다·호주·콜롬비아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절감액을 6.4억 달러까지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동차 부품) 기타 자동차 부품의 경우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공장이 있는 EU, 미국, 터키, 인도와의 FTA 발효로 '13년 현재 관세절감액이 1.3억 달러에 달하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FTA의 관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 관세절감액은 캐나다·호주·콜롬비아와의 FTA로 연간 2.1억 달러, 한·중 FTA로 6.1억 달러까지 확대 가능
- (석유화학) ABS수지는 '03년 수출시 6.4%의 관세율이 EU, 터키와의 FTA로 '13년 4.3%까지 낮아져 절감액이 연간 3천 4백만 달러이며,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FTA시 관세율은 1.7%까지 낮아질 전망
- (전기전자) 충전기기 등 전기기기의 부분품도 FTA 확대 속에서 관세절감액이 '13년 연간 5천만 달러에 달함
- (섬유) '03년 8.0%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직물도 미국, EU, ASEAN, 인도 등과의 FTA 체결로 '13년 관세율이 5.0%까지 인하되어 관세 절감액이 연간 6천백만 달러 수준임

- o (식품) '03년 관세율이 15.2%로 상당히 높은 조제식료품도 FTA 덕분에 관세율이 '13년 9.9%까지 인하되고 연간 3천 3백만 달러의 관세 절감이 가능해짐

〈산업별 주력 수출품의 FTA 관세 절감 효과 추정〉

FTA 연도		'03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페루	미국	터키	'15	'16	'24	캐/호/콜 ³⁾	중국
		'04	'06	'07	'10	'11	'12	'13						
[자동차] HS 870323 준중형 승용차 (억\$, %)	未체결 관세액	6.3	9.6	16.1	23.6	32.6	38.8	34.7	32.3	32.3	32.3	32.3	32.3	32.3
	未체결 관세율	6.4	7.7	11.2	14.4	17.0	14.9	12.6	12.0	12.0	12.0	12.0	12.0	12.0
	FTA 관세액	6.3	9.6	16.0	23.5	32.3	38.2	33.7	31.1	30.9	28.5	28.4	25.9	22.2
	FTA 관세율	6.4	7.7	11.1	14.3	16.8	14.6	12.3	11.6	11.5	10.6	10.6	9.6	8.2
	관세절감액	0.00	0.04	0.10	0.14	0.30	0.68	1.0	1.1	1.4	3.8	3.8	6.4	10.1
	절감관세율(%p)	0.0	0.0	0.1	0.1	0.2	0.3	0.4	0.4	0.5	1.4	1.4	2.4	3.7
[車부품] HS 870899 기타 車부품 (억\$, %)	未체결 관세액	2.7	4.0	6.5	7.0	10.5	11.4	10.2	10.2	10.2	10.2	10.2	10.2	10.2
	未체결 관세율	9.6	9.7	8.2	7.2	7.5	7.4	7.3	7.5	7.5	7.5	7.5	7.5	7.5
	FTA 관세액	2.7	4.0	6.5	7.0	10.5	10.5	8.8	9.0	8.8	8.5	8.2	8.0	4.1
	FTA 관세율	9.6	9.7	8.2	7.2	7.5	6.8	6.3	6.6	6.4	6.2	6.0	5.9	3.0
	관세절감액	0.00	0.00	0.01	0.02	0.02	0.90	1.4	1.3	1.5	1.8	2.1	2.3	6.1
	절감관세율(%p)	0.0	0.0	0.0	0.0	0.0	0.6	1.0	1.0	1.1	1.3	1.5	1.7	4.5
[석유화학] HS 390330 ABS수지 (M\$, %)	未체결 관세액	60	80	86	116	153	156	140	149	149	149	149	149	149
	未체결 관세율	6.4	6.2	4.9	5.3	5.5	5.6	5.5	5.6	5.6	5.6	5.6	5.6	5.6
	FTA 관세액	60	80	86	115	144	140	119	114	109	108	103	102	46
	FTA 관세율	6.4	6.2	4.9	5.3	5.2	5.0	4.7	4.3	4.1	4.0	3.9	3.8	1.7
	관세절감액	0.00	0.03	0.13	1.6	8.5	16	21	34	40	41	45	46	103
	절감관세율(%p)	0.0	0.0	0.0	0.1	0.3	0.6	0.8	1.3	1.5	1.5	1.7	1.7	3.8
[전기전자] HS 853890 전기기기 부분품 (M\$, %)	未체결 관세액	7	11	19	29	49	73	163	223	223	223	223	223	223
	未체결 관세율	4.2	4.9	5.2	5.4	5.7	5.8	6.2	6.2	6.2	6.2	6.2	6.2	6.2
	FTA 관세액	7	11	19	29	46	62	137	173	164	160	151	151	18
	FTA 관세율	4.2	4.9	5.2	5.4	5.4	5.0	5.2	4.8	4.5	4.4	4.2	4.2	0.5
	관세절감액	0.0	0.0	0.0	0.2	3	11	27	50	59	63	72	72	204
	절감관세율(%p)	0.0	0.0	0.0	0.0	0.3	0.8	1.0	1.4	1.6	1.7	2.0	2.0	5.6
[섬유] HS 600410 편직물 (M\$, %)	未체결 관세액	55	64	77	109	115	132	134	138	138	138	138	138	138
	未체결 관세율	8.0	8.2	8.6	9.4	9.0	8.9	8.9	8.9	8.9	8.9	8.9	8.9	8.9
	FTA 관세액	55	64	77	106	95	90	81	77	67	62	49	48	30
	FTA 관세율	8.0	8.2	8.6	9.2	7.5	6.1	5.4	5.0	4.4	4.0	3.1	3.1	1.9
	관세절감액	0.00	0.00	0.00	2.75	19	42	53	61	70	75	89	90	108
	절감관세율(%p)	0.0	0.0	0.0	0.2	1.5	2.8	3.5	3.9	4.5	4.9	5.8	5.8	7.0
[식품] HS 210690 조제식료품 (M\$, %)	未체결 관세액	16	25	29	31	61	84	79	88	88	88	88	88	88
	未체결 관세율	15.2	14.8	15.5	15.1	16.3	16.5	16.1	15.9	15.9	15.9	15.9	15.9	15.9
	FTA 관세액	16	25	29	30	49	57	52	54	54	53	52	51	42
	FTA 관세율	15.2	14.8	15.5	14.6	13.0	11.1	10.6	9.9	9.8	9.7	9.5	9.4	7.7
	관세절감액	0.00	0.00	0.00	1.1	12	28	27	33	34	34	35	36	45
	절감관세율(%p)	0.0	0.0	0.0	0.5	3.3	5.4	5.6	6.1	6.2	6.2	6.4	6.6	8.2

주1: 국별 비농산물 평균관세율에 각 FTA별 관세 양허 스케줄과 수출 비중을 가중하여 산출

주2: 분석을 위해 FTA 활용과 관세환급 등은 고려하지 않은 추정치

자료: WTO 및 코트라 세율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및 GTA 통계, 각 FTA 별 협정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콜롬비아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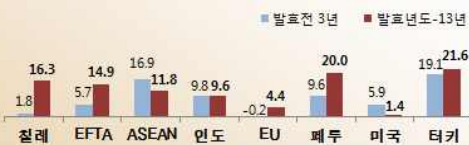
V. 결론 및 시사점

- 2003~2013년간 FTA 10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교역 증대, 경쟁력 강화, 교역 다변화, 관세 절감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칠레 FTA는 10년간 양국간 교역량이 연평균 16.3% 증가하고, 승용차 등 우리 주요 수출품목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교역품목 및 수출 기업의 다변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 FTA 발효 이후 EFTA, ASEAN, 페루,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확대되었으며, 모든 FTA 체결국과의 교역품목이 다변화됨
- 한편, FTA 체결로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율(수출액 가중)이 2003년 5.3%에서 2013년 4.7%까지 인하되어 FTA를 100% 활용시 관세절감 금액이 79.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의 FTA 10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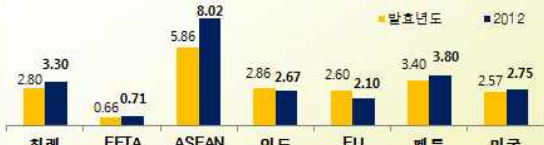
교역 증대

- 한국의 對FTA 체결국 연평균 교역 증가율(%)



경쟁력 강화

- 한국의 對FTA 체결국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교역 다변화

- 한국의 對FTA 체결국 교역품목수(HS10단위) 변화(발효전년-13)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수출	938	1,171	5,179	2,762	4,347	1,022	4,526	2,002
수입	1562	1,517	6,031	3,001	4,563	1,161	4,769	2,122
수입	168	2,462	4,510	2,612	6,804	305	6,700	1,596
수입	886	2,774	5,182	3,218	7,142	358	6,934	1,793

- 한국의 對칠레 수출 기업수 규모별 변화(03-13)



관세 절감

- FTA 관세절감 효과 추정



2013	승용차	기타자동차	ASEAN	한미FTA	한중FTA	한일FTA
가중 관세율(%)	11.57	6.58	4.28	4.77	4.99	9.86
관세 절감액(억\$)	1.1	1.3	0.34	0.50	0.06	0.33

□ 칠레와 같은 신흥개도국과의 FTA는 교역증대 뿐 아니라 교역품목 및 수출기업의 다변화 효과가 크며,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에 크게 기여

○ FTA 발효 이후 對칠레 수출 및 수입 품목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며, 對칠레 기계류 및 화학제품 수출과 농수산물식품 수입이 다변화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연간 수출금액 1만 달러 이상, 백만 달러 이하의 중소 기업수가 발효 전 471개에서 2013년 1,249개로 늘어남

○ 2010년에 FTA를 발효한 페루와 서명 후 비준을 앞두고 있는 콜롬비아 시장도 향후 한·칠레 FTA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잠재력이 크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정보가 부족하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낮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경우 교역품목 및 수출기업의 다변화 효과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

□ FTA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는 FTA 100% 활용을 전제로 추산된 것으로 향후 FTA 활용율 제고를 통해 관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FTA 체결국의 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최대 관세 절감 효과가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무역업계의 FTA 활용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강화가 요구됨

□ 금년부터 세계경제의 회복이 진행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로 FTA 효과가 크지 않았던 EU, 미국 등 거대 선진국과의 FTA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우리의 교역 의존도가 큰 EU, 미국과의 FTA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무역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